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0/7℃ 목포 1/6℃ 여수 4/9℃

단기 4342년 (음력 10월 2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48호 1판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사는 외국인들 친선의 밤 광주와 전남에 사는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가 13일 광주시 메리어트 예식장에서 주최한 '창립 44주년 및 제13회 국제가족 친선의 밤' 에 참여한 3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는 같은 외국인들의 전통 춤 등 장기자랑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관련인터뷰 16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 F1 본격 시동 걸었다

내년 10월 22~24일 개최…내일 국제포럼·조직위 발족

내년 10월 영암에서 치러지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이하 F1대회)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되고, 대회를 총괄할 조직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한국 최초로 전남에서 개최되는 F1대회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관련기사 3면〉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orld Motor Sport Council·WMSC)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모나코에서 총회를 열고 내년 10월 22일부터 3일간 영암에서 F1 코리아그랑프리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0년 F1대회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첫날인 22일엔 연습주행, 23일엔 예선전 그리고 24일엔 결승전이 치러진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잠정 일정에 비해 1주일이 늦춰진 것으로, 한국 F1대회 직전 대회인 일본 스즈카 F1대회 개막이 10월 1일에서 8일로 1주일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최종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15일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코리아 F1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이어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F1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공식 발족,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출범하는 조직위는 중앙정부와 정·재·학계인사 등 120여 명으로 구성돼 F1대회 민간지원 활동을 비롯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역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대회 총괄 및 기능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위 출범과 함께 열리는 F1국제포럼은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유선호 국회의원, 한범수 한국관광학회장,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1대회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정이사에 총장은 배제·옛 경영진 가족 복귀

조선대 정상화 '불안한 출발'

뉴스 분석 21년만의 정이사 체제, 이슈 세가지

조선대학교가 21년 만에 정상화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지난 10일 조선대 정이사 8명(예비이사 1명)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988년 옛 경영진 퇴출 이후 임시이사 파견과 이사부존재 상태를 거듭하며 분규 사학의 오명을 써왔던 조선대가 비로소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하게 됐다.

그러나 퇴출됐던 옛 경영진 가족이 이사에 포함된데다 조선대총장이 이사에서 제외되는 등 극도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이어서 조선대의 정상화가 조기에 안착될 지, 장기간의 파행을 겪을 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옛 경영진(종전이사) 가족, 이사로 복귀=故 박철웅씨의 장녀 박성숙씨가 정이사에 포함됐으며, 손자 박영석씨가 예비이사로 선임됐다.

조선대 교수와 교직원 등 구성원들은 지난 21년 동안 옛 경영진의 복귀 저지에 온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명이 정이사로 선임된 것. 이 때문에 일부 구성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시작은 2명의 이사이지만 3년(임기)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선대가 다시 옛 경영진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범조선비상대책위'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로 퇴출된 옛 경영진의 가족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故 박철웅씨의 장녀 박성숙씨는 현직 의사로서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는 점, 예비이사인 박영석씨도 30대의 변호사라는 점 등을 들어 옛 경영진 가족이라는 사안만으로 무턱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조선대총장 이사회 배제 파행 불씨되나?=총장이 정이사에 선임되지 않으면서 조선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총장의 이사회 배제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옛 경영진에 대한 견제의 기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동국대·영남대 등 대부분의 4년제 사립대는 총장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사회와 현 집행부의 화합 및 견제·균형을 위해서다.

조선대는 지난 1988년 이돈명 총장이 취임했으나 이사회에 진입하지 못해 임기 2년 동안 이사회와 집행부가 극한의 대립을 보였다. 이후 이 총장에 이은 정병휴 총장 때부터 총장이 이사회에 참여해왔다.

이 때문에 조선대는 정이사 7명을 제외한 이사 선임시 총장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장이 정이사에 추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정이사 체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옛 경영진 정애리시씨와 박성섭씨 이견 보이나?=박성섭씨 측은 옛 경영진이 조선대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해야 하는 만큼 정이사 전원 또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며 사분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와 뜻을 같이 했던 정애리시씨가 큰 딸을 정이사에 추천한 만큼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쏘울' 年 8만대 더 만든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공장 증설 수용…내년 2월부터 증산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적 수출 차종인 쏘울 증산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측의 600억원 투자계획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 50만대 생산 체제 구축이 오랜 숙원 사업임을 감안, 공장 증설 공사 등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 강도 완화 방안 마련 및 쏘울 물량에 대한 현실성 등을 이유로 공장 증설 문제 등에 난색을 표했던 노조가 사측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광주공장의 쏘울 생산 능력은 현재보다 66% 확대된다.

증축 공사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한데다, 송천권 기아차 광주공장장이 "물량 해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증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광주공장의 쏘울 증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아차는 광주 1공장의 시간당 쏘울 생산대수(UPH)를 37대에서 42대로 늘리고 2공장 스포티지 라인에서도 쏘울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혼류생산제를 도입해 쏘울 생산능력을 연간 12만대에서 20만대로 개선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노조와 협의를 해왔다.

노조는 그러나 "노동 강도 완화 방안, 증산 계획에 대한 판매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증산 계획의 현실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

2010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모집
1. 석사과정(야간, 일반전형) : 행정학과 50명 내외
- 공공행정전공 광주캠퍼스 - 공공행정전공 여수캠퍼스
- 경찰행정전공 광주캠퍼스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9. 12. 14(월)
2. 제14기 최고정책과정 : 50명 내외
- 모집대상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홈페이지 참조)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9. 12. 16(목) - 2010. 2. 19(금)
3. 기타 문의사항
- 행정대학원 행정실 : ☎ 062-530-5195, 2277 - 홈페이지 : http://cnugpa.kr

오늘부터 한파 주후반 눈온다

14일부터 광주·전남지역은 평년기온을 밑도는 추위 속에 3~4일 간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6~9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겠으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주간 기온도 평년(최저기온 영하 7도~영상 2도, 최고기온 5~10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20일까지 목포와 영광 등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